

여성론 이어! 일상에 시비를 걸자!

“1312” 소식지 3호

‘1312’는

여성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여성주의가 너무나 아름다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여성들끼리
뭔가 신나는 일을 저지르고 싶어
모인 곳이다.

◎ 98반미 대동제를 보면서 여성인 내가 통탄한 이유! ◎

우리학교에는 언제쯤 여성주의 대동제가 열릴까? 아니 적어도 성폭력 대동제만은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올해도 여전히 대동제는 먹고 죽자, 내지는 자본주의 대한민국에 걸맞는 장사꾼 대동제였었다. 거기다가 올해는 유달리 여성의 몸을 벗겨놓고 물풍선 던지기도 많아서 우리를 슬프게 했다. 비키니 수영복도 모자라 이제는 여자가슴에 남자 손이 들어가질 않나, 여자 나체가 등장하기도 하고 갈수록 그 강도가 세지고, 그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총학생회에서 대동제 기간동안 성폭력 감시단을 운영했지만, 형식적인 활동에 머물렀으며 제대로 운영되지는 못했었다.

늘 반미를 외치고 진보를 이야기한다지만 유독 여성관만은 혼탁한 여느 기득권자와 다름없는 총학생회. 지금 내가 총학생회를 갈구는 이유는 총학생회가 지난 한총련 대의원대회 때 불신감문 반대운동을 하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여학생

회 성추행문제를 공공연히 떠들면서 자기들의 논리의 정당성을 위해 여성문제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총학생회의 직접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라 부풀린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음)

뿐만 아니라 매체 정보학과 프리즘이라는 학회에서는 이번 대동제때 광고 속의 성 상품화에 대해 전시를 했었다. 그러나 진지한 접근이 아닌 여성의 몸 노출 사진을 한껏 전시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요기를 단단히 했기 때문이다. 또 한 번 여성의 몸을 볼거리로 전시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여성의 몸을 남성들의 볼거리로 전시되는 것을 거부한다. 여성의 몸의 주인은 당연히 여성이다. 성폭력에 관한 법률이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너무나 남성중심적인 시각이며 고쳐야 한다.

대학의 공동체 문화를 상징하는 대동제라는 공간에서 겨우 한다는 행사가 돈놓고 돈먹기나 여성의 몸 갖고 노는 놀이라니 너무나 안타깝다. 이제 더 이상 여성의 몸을 갖고 눈요기 거리로 보거나 갖고 놀지마라! 1312가 그냥 있지 않으리라!



◆ 우리가 미인대회를 갈구는 이유! ◆

오래간만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봤다. 느끼하고 화가 나서 도저히 맨 정신으로는 볼 수 없었다. 거기다가 재심사까지.

여성단체의 미인대회 폐지 요구와 구제금융시기를 맞아 사치스러운 미인대회를 폐지하자는 논란도 있었지만 여전히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직접 미인대회를 주관하거나 후원하면서 화려하게 미인대회는 열렸다.

미인대회를 보면서 당신은 어떤 기분입니까? 재미있다, 00번이 제일 이뽀, 00번은 별로야,라며 같이 즐겁습니까?

이번 대동제 때 여러 형태의 성폭력을 접하면서 미인대회 폐지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기에 또다시 미인대회를 갈구기로 했다. 미인대회는 여성들의 육체를 심사하고 평가함으로써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의 육체를 제시한다는 거름터이다. 과연 그렇게 규격화된, 객관적인 미인이란 있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객관의 기준이란 왜 정하고 누가 정하며 심사하는 것인지?

여성의 육체를 쇠고기 부위 가리듯 나누어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정해진 기준에서 약간이라도 왜소하거나 뚱뚱하거나 늙었다면 이 선발 기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기준에 맞는 여성의 몸만이 정상이라고 간주되어 여성들에게 무리한 육체와의 전쟁을 부추긴다. 뿐 만 아니라 여성의 몸은 '쾌락을 즐기기에 가장 알맞는

몸'으로 물상화, 대상화되어 제시되어진다.

그 폐단은 그 뿐이 아니다. 여성의 능력보다 외모를 중시하는 풍조가 생겨 취업에서 '용모단정', '키 160cm이상, 몸무게 50kg 이하'라는 조건이 생겨난다. 또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연되는 성의 상품화와 여성 전체에 행해지는 성희롱 등이 부추겨진다.

여성의 육체를 갖가지 방식으로 구경하고 전시하고 이용하는 방식이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여러 병리적인 폐해와 무관하지 않다. 미인대회로 상징되는 이러한 여성 육체의 대상화, 미의 정형화 등은 여성의 육체에 강요되는 검열과 성의 불평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인대회는 여성 스스로에 의해 거부하고 비판받아야 하며,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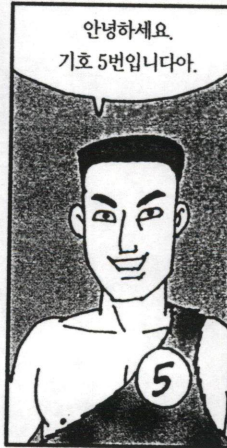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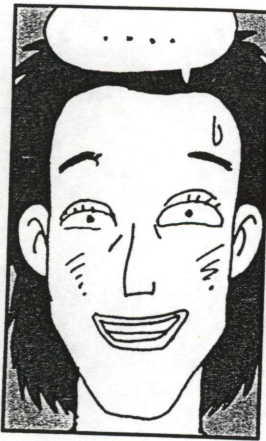
Mr 선발대회



기호는

옛날엔 여자가 세상을 지배하였다더라.





◆ 활동 보고 ◆

▶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이었지만 훈 할머니가 영구귀국 하시는 날이어서 우리는 환영행사에 갔었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람들과 훈 할머니 귀국 준비 주체인 불교후원회와 나눔의 집 할머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눔의 집의 박두리 할머니와 김순덕 할머니도 뵈었고(영화 배우를 만나는 기분이었음), 훈할머니 외손녀인 잔니도 만났다. 이날은 온갖 언론과 더불어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이후의 생활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요즘 매우 힘든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한다. 언어가 안 통해서 힘들고 몸도 불편하시다고 한다. 경산에 살고 계신다니까 우리도 자주 찾아뵙시다.

▶ 5/2-3일엔 통일 아카데미가 우리 학교에서 열렸다. 우리 회원들은 많이 참가하지 못했지만 떠리가 꾸준히 결연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도 북한동포 돕기에 함께 합시다. 그리고 떠리에게는 모범상을 ... 상품은 양녀가 뽀뽀를.....

▶ 5/5일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북한동포돕기 모금운동을 대백앞으로 나갔었다. 이날 약 50만원 가량을 모았었고, 모두 더운 날씨 속에서 열심히 했었다. 짹짹....

▶ 5/11일에는 총여학생회의 2회 페미니스트와의 만남이 '생리'를 주제로

있었다. 리나언니와 마녀가 와서 비디와 상영과 연극 및 강연이 있었다. 우리 식구들도 많이 가서 구경하고 뒷풀이에 같이 가서 재밌는 시간을 가졌었다. 이후 다른 모임에서도 생리를 주제로 많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 5/13-15일에는 총여 2회 '여성영화제'가 '결혼과 여성'을 주제로 있었다. 우리 식구들은 이때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영화보고 토론하고 강연 듣고, 총여행사에 200%로 활용을 잘했었다. 물론 행사준비도 약간 도왔음.

그리고 지혜언니랑 술먹고 밤새면서 레즈비언에 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깰 수 있었고, 그동안 각자가 궁금했던 성정체성에 관한 것들이랑 여성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를 정말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 꽃을 피웠음.

▶ 5/23일엔 자우림 콘서트에 갔었다. 이 공연은 성폭력 방지를 위한 공연이었으므로. 랑네꼬 혼자 신났음. 같이 간 양녀는 분위기 적응이 느려 얼떨떨 했음.

▶ 5/22일에 법대에서 IMF 관련 강연이 있었는데 스스로 찾아가서 공부하려는 기특한 회원들도 있었음.

▶ 5/25일에는 총여의 성폭력 관련 강연이 있었다. 여전히 우리 식구들은 착하게도 강연을 열심히 듣는 모범을 보였음.

▶ 5/26-28일에는 우리학교 대동제가

있었다. 이번 대동제를 여성주의 대동제로 만들고자 여성해방공간 '레스보스'를 만들어서 즐겁게 보냈다.

▶ 5/30일에는 5월 시민모임이 있었다. 껍과 양녀 둘밖에 참가를 못했지만 강연도 듣고 할머니들과 즐거운 시간,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시민모임에서도 아직은 여성주의 시각이 자리잡지 못해서 한 발언 하고 왔음. 앞으로는 우리학교 기독교학생회의 현숙이와 정민이도 1312에 참가할 듯.....

▶ 5월 한달동안 효가대 여성학과에서 주최한 여성학 강의에 우리 식구들이 열심히 참가했었다. 제일 열심히 질문하고 진지한 자세를 보여 1312의 위상을 드높여준 회원들에게 박수를 ... 그리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도움도 되었다.

● 성폭력, 나는 이렇게 대처했다.●

◎ 모범사례

▶ 밤늦게 공중전화박스에서 전화를 하던 홍모양은 전화박스옆에 차를 세워놓고 '10만원 줄테니 같이 자자'고 한 원 아저씨를 그냥 보내지 않고 재빨리 차량번호를 외워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것 가지고 뭘 그러느냐는 경찰의 말을 무시하고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그놈의 집으로 찾아가 무릎꿇고 사과를 받아냄. 여력분도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성폭력에도 꼭 사과를 받아내 다음부터 이런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딱딱하게 혼내줘야 함.

▶ 경산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던 김모양은 신호대기 중이던 대형 트럭기사가 입맛춤의 손짓을

보내는 것을 발견.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꺾기지 않고 중간 손가락을 내밀어 '쫓가라'는 포시를 해줌. 손짓의 성폭력을 손짓으로 당당하게 해쳐나간 우력의 모범진!
훌륭하다! 멋있다

[광 고 1]

'레스보스'에서 팔다가 남은 (IF)와 (또 다른 세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3천원대니까 이 기회에 소장하신다면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됨.
주위 사람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 필요하신 분은 양녀에게 말만 하세요.
(015-759-3567)

▶ '1312' 시비쟁이들 사고 치다!!

--- 여성해방공간 '레스보스'를 열며◀

해마다 열렸던 대동제, 1년 중 가장 큰 축제인 대동제에 우리 여성들은 전 부치고 씨빙하고...

아니면, 온통 술 마신 남자들이 득실거리는 축제가 무서워 일찍 집에 가버리거나... 그걸 보던 1312시비쟁이들이 화가 나서 사고를 치기로 했다. 이름하야 "레스보스!!", 서울의 레즈비언 cafe 이름을 훔쳐다 여성 전용 cafe를 연 것이다. 처음에는 중도 술밭에서 열기로 되어 있었으나 사정상 노천강당 여학생 휴게실에서 열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여자들끼리 모여 앉아 회회낙낙거리며 담배나 퍼덜라고 만들었다지만 그 얼마나 무식한 발언인지를 가르쳐 주마!!! [레스보스], 우리

1312시비쟁이들은 그것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맥주와 음료를 공급하여 酒동제에서 벗어나 축제다운 축제, 여성의 축제를 누리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보금자리가 되었고,(사실, 시비쟁이들이 더 많이 마셨지만..^^;) 26일에는 피아노, 에로띠끄를 27일에는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 나의 장미빛 인생, happy together, 28일에는 피고인과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등의 영화를 상영하여 영화를 통해 여성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성(혹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비쟁이들은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여기에서 '성폭력'은 성적 괴롭힘, 성희롱, 성폭행을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서, 성을 매개로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의미한다.-성폭력 경험담을 나누면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배우고, 그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태권도 선수에게(물론, 여성이다. 여고생!!) 호신술도 배웠다. 그뿐만이 아니다. 학구적(?)인 시비쟁이들은 각지에서 자료를 구입해 여성관련자료를 전시, 판매했다. 여성 잡지<if>, 레즈비언 잡지<끼리 끼리>, 여성 인권 모임 '마녀'에서 발간한 <마녀> 그 외에도 시비쟁이들이 준비한 자료들은 리포트에 도움이 되는 것은 기본이고, 답답하고 궁금한 여성 문제의 등불이 되어주지 않았나 한다. (푸헐, 자화자찬 ^^)-아직 남은 물량이 많으니까 필

요하신 분은 1312시비쟁이들에게로..- 그리고 여성임이 신나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우<-요렇게 생긴 뺏지도 판매했고 밤길이 무서운 사람들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호루라기(밤에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면 몽둥이를 들고 뛰어 나갑시다. 신고는 필수!!), 레즈비언 상징 무지개 뺏지도 판매했다.

시비쟁이들이 불끈(!!)해서 연 여성전용cafe <레스보스>, 비록 쏙딱 망하기는 했지만 우리 시비쟁이들은 기쁘기만 하다.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더욱 시비쟁이들의 위력을 보여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남성들이여 떨고 있으라!!) 올해는 처음, 기지개를 펴는 단계라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조금씩 분발하여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좀 더 가까이 여성 동지들의 곁으로 다가갈 것이다.

여성을 위하여 화이팅!!!

-여성임이 신나는 세상을 꿈꾸는 1312시비쟁이들-

● 시비쟁이가 뽑은 이달의 성폭력 ●

▶ 영대신문 5월 둘째준가 셋째주 신문에 실린 학원만평을 고발한다. 이 만화는 주제도 뚜렷하지 않을 뿐더러 여학생들이 짧은 치마와 패인 옷을 입고 지나가는 것을 본 남학생이 사시눈이 되어 침을 흘리는 것을 그려 놓고 있다.

여름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건지, 노출이 심한 여성의 복장을 욕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

의 내용없고, 왜곡된 시각의 만화를 그대로 실는 영대신문은 각성해야 한다. 이런 만화가 그대로 전달될 경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이 피해자 여성에게 돌려질 수도 있으며, 성폭력 사건은 여성의 과다한 노출 때문이라는 왜곡된 지식을 심는 결과를 낳는다. 대학신문이라면 적어도 이런 내용없고 왜곡된 남성중심 시각의 만화는 편집실에서 자제해줄 것 명하노라!

● '레스보스' 결산공고 ●

- 수입; 50.000원 (총여 지원금)/75.00원 (떠리)
= 57.500원
- 지출; 14.500원 (안주) / 20.500원 (맥주)
21.000원 (음료수) / 33.500원 (비디오)
7.500원(호루라기) / 10.800원 (뒷풀이)
4.900원 (밥) = 112.700
- 판매 수입 (서울에 올려줄 책값 포함)
술 및 음료 판매; 27.500
마녀; 10.000 / 뻗지; 42.000 / 책; 15.000/
복사물; 2.450
- 총수입 = 57.500(투자비) + 111.000(판매 수입금) = 168.500

168.500(총수입)-112.700(총지출) = 40.800원 수익금에서 서울 보낼 것(IF, 또 다른 세상, 뻗지); 69.000원, 따라서 -13.200원
그러나 양녀가 '아시아에서 -'값(30.000)을 지불하면 최종 순수 수익금 = 5.200원

[광고2]

6/5일에는 '1312' 상반기 정리 모임을 가려고 합니다. 이 날은 상반기 평가와 자축. 그리고 방공 계획을 이야기 할 생각입니다. 시간은 오후 6시이구요.

어날 참가하실 수 없는 분은 따로 모임을 잡도록 해요. 그리고 밀린 회비도 들고 오세요. 월 3.000원입니다.

● 뽕뽕이의 <'거짓말'과 '세상 끝까지'에 나타난 여성상>을 신기로 했는데, 그 글은 드라마 중반에 쓰여진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가 종료된 후에 다시 검토를 해보니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이 드라마 초반과 달리 많이 변질되어 도저히 살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써준 글을 신지 못하게 되어 뽕뽕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

◎ 시비쟁이가 뽕은 이달의 나쁜 놈 ◎

▶ 교직과목 강사 중 이동기 교수라고 있다. 나름대로 참 신선한 방식으로 수업을 해서 평가가 좋은 강사였다. 그러나 수업 시간 중에 이런 혼탁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내 수업 듣는 여학생 중에서 술집에서 만났는데, 만약 담배를 피고 있다가 돌키면 출석이나 시험성적이 좋더라고 무조건 F준다'

교수가 수업시간에 이따 식으로 말해도 되는거야?우리 모두 이 강사에게 항의 전화를 합시다.